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모형에 관한 연구 - 영세 빈곤가족을 중심으로 -

김 재엽¹⁾ 이 서원²⁾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자료분석의 결과
- V. 치료모형 제언

I.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구타를 아내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식하여 왔다. 또한 가정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가정내에서의 아내구타는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 혹은 부부간의 문제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표출되거나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구타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 가정주부의 절반 이상이 결혼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³⁾ 또한 지난 4년간 아내구타와 관련해 피

1)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3) 89년 한국궐련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5%가, 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50.5%가, 92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는 61.0%가 각각 아내를 구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영숙(1986)의 경우 응답자의 42%가, 김갑숙(1990)의 경우 45.7%가, 김정옥(1991)의 경우 48.4%가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해자가 자살하거나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하던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40여건에 이른다는 보고는 더 이상 아내구타가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아내구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내구타를 일으키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아내구타를 일으킨 요인을 정확히 밝히고 요인에 따라 다각적으로 접근할 때에만 아내구타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분석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들⁴⁾은 아내구타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부장적 태도를 들고 있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가부장적 태도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성의 전통적 지위가 하락한 것은 가부장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게 갈등을 겪게한다.

더구나 남성우위의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가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경우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선행연구⁵⁾에 따르면, 이러한 열등의식은 공격성과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가정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성공이나 평가에 있어서 서구사회와 같이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단일한 가치가 우세한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열등의식은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열등의식과 아내구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열등의식과 아내구타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와 아내구타와의 상호연관성을 실증적 연구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둘째, 아내구타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사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4) Dobash,R.Emerson,and Russell P.Dobash, "Wives: The 'Appropriate' Victims of Marital Violence.", *Victimology* 1, 1978, pp. 416-418.; Straus,Murray A. and Yllo,K.A.,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ives:the Impacts of Structural Normative Factors", Transaction Pub., 1992, pp.214-216.; 김재엽, "가정폭력의 실태와 임상개입에 관한 연구:재미한인가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제2권, 1995, pp. 91-96.
- 5) 최근 열등의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열등의식과 공격성에 관한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Brockner(1983)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과일반화 경향으로 인해 열등의식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Goldstein(1986), 坪田(199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열등의식과 공격성간의 정적인 관계가 지지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빈곤계층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집단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⁶⁾에서는 아내구타에 있어서 구타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빈곤가구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 빈곤가구의 아내구타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사회, 특히 빈곤계층에서의 아내구타의 실태 및 원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아내구타와 열등의식 및 성역할 태도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열등의식과 아내구타

본 연구에서는 열등의식을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식과 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정서'로 정의하고 아내구타와 열등의식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부부관계에서 아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남편의 열등의식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현재까지 열등의식과 아내구타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열등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열등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Brockner(1983)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 강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과일반화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사소한 자존심의 침해가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도 보다 더 공격성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Goldstein(1986)은 부정적 자기평가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며⁷⁾, 이러한 공격성은 학습되어진다고 하였다. 坪田(1990)은 상대와의 비교상황에서 발생하는 열등의식은 분노, 증오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 공격성을 유발하기 쉽다고 하였다.⁸⁾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열

6) 미국 national commission(1968)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아내구타는 특별한 계층이나 인종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빈곤계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Dibble and Straus(1980)의 연구에서도 고소득층의 남성보다 저소득층의 남성들의 배우자 폭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lbrich and Huber(1981)의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수입범주에 있는 집단이 가장 높은 수입범주에 있는 집단보다 부부폭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7) 홍성열, 임영식 역, "범죄행동은 환경적인가", 서울 : 성원사, 1993, p. 54.

등의식과 공격성의 정적인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열등의식과 아내구타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아내구타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양자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민자와 손선옥(1994)이 울산시 기혼여성 550명을 대상으로 아내구타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부인이 생각하는 구타의 중요한 이유의 11.4%를 남편의 열등의식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의 전화(1992)에서 면접에 임한 피해여성에게 폭력의 이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8.8%가 남편의 구타이유로 남편의 열등의식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가지는 열등의식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열등의식을 추론한 것에 불과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남편의 열등의식이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열등의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사회에서 열등의식이 아내구타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성역할 태도와 아내구타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관계에서 성역할태도는 아내구타와 관계가 있다.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유교적 전통과 일맥상통하며, 부부관계의 가치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의 성(性)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기대가 명확하게 정의되었으며,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위치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가족체계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핵가족 구조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대 역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다. 남편은 모든 결정상황에서 최종결정자이며, 그의 권위는 아내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여성이 전통적인 규범을 어기거나 이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려 할 경우, 폭력을 포함한 일련의 제재행위는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다.

3. 빈곤가구의 아내구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빈곤가구의 아내구타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가구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체로 연구의 초점이 경제문제와 주거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아

8) 坪田雄二, "嫉妬感情の研究", 一朝閣, 1990, p. 53.

내구타의 실태파악 및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 김수환(1972)의 빈곤가구 부부의 결혼생활문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아내구타가 5명 중 1명의 비율(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선화(1992)가 빈곤가구의 생활습관상의 문제를 연구한 것에 의하면, 아내구타가 10명 중 1명의 비율(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가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부문제 중 아내구타에 대해 심각성과 폐해는 지적하고 있으나 발생율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내구타에 대한 조사도 단지 아내구타 경험여부만을 질문하고 있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열등의식이 높을수록 아내구타 정도가 심할 것이다.

가설 2.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일수록 아내구타 정도가 심할 것이다.

연구가설에 따라 열등의식과 성역할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아내구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조사대상자에 있어 빈곤가구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 및 학력,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열등의식 및 성역할태도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측정도구

1) 아내구타 척도

본 연구논문의 종속변인은 '아내구타'이다. 아내구타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행

위이다. 본 연구에서 아내구타는 Straus(1973)가 사용한 갈등관리행동척도(CTS:Conflict Tactic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traus의 척도에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항목은 폭력행동에 해당하는 8항목으로, 이는 다시 가벼운 폭력 3항목과 심한 폭력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적 폭력행동에 해당하는 8항목을 아내구타로 보고, 이들 항목중 우리나라 상황에 부적절한 어구를 수정하고⁹⁾ 극심한 항목에 해당하는 7번째 항목과 8번째 항목을 합하여 <표1>과 같이 7개의 항목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표 1> 아내구타 척도

영역	번호	항목
가벼운 구타	1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2	세계 밀쳤다
	3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심한 구타	4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5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렸다
	6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였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CTS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¹⁰⁾들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2) 성역할태도 척도

성역할태도는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이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를 Blood와 Wolfe의 척도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Blood와 Wolfe의 척도를 이용하여 '중요한 영역에서의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누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함으로써 부부간에 나타나는 성역할태도를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9) '총이나 칼로 위협하였다.'와 '총이나 칼로 다치게 하였다.' 항목에서 '총'이란 어구를 우리사회에 적합한 '흉기로 바꾸어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였다'와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였다'로 수정하였다.
 10) 송영자(1986)는 4점 척도(1번 1점,1-2번 2점,3-4번 3점,5-6번 4점)로 사용하였는데 Cronbach α 값은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김정옥(1987)은 5점 척도로 사용하였는데 각 문항간의 내적일치도 점중에서 Cronbach α 값이 .854로 역시 높은 편이었다. 김이화(1988)도 5점 척도(거의 매일 5점, 1주일에 1회 이상 4점, 한달에 한두번 3점, 1년에 한두번 2점, 전혀 없다 1점)로 사용하였는데 각 문항간의 내적일치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alpha=.91$ 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표 2> 성역할태도 척도

영역	번호	항목
경제문제	1	가구와 같은 고가품을 구입할 때 최종결정은 누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세를 얻거나 집을 마련할 경우 최종결정은 누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문제	2	자녀의 진로에 대한 최종결정은 누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업문제	4	남편이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경우 최종결정은 누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아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경우 최종결정은 누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31명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ronbach α 에 의한 문항 내적일관도 신뢰도는 .80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성역할 태도를 Wolfe(1959)의 분류방식에 따라 SDI와 DPI를 기준으로 남편지배형, 아내지배형, 분리형, 평등형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¹¹⁾

3) 열등의식 척도

열등의식은 현재까지 개념적 연구가 미흡하고 측정하는 적합한 조사도구가 부족하여 연구자가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 기존의 국내외 열등의식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해 열등의식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그 중에서 주된 열등의식의 내용들을 선별하였다.

2. 우리나라 부부들의 열등의식 내용을 파악해 보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423명에 대

11) 각 점수의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SDI(Shared Power Index: 권력공유지표) 점수 합산 -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를 합한다. 최저 0에서 5까지의 수가 나온다. 이를 0에서 100점까지로 환산한다.

② DPI(Decision Power Index: 의사결정지표) 점수 합산 -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범주에 대해 1점("아내가 단독으로")에서부터 5점("남편이 단독으로")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5문항의 응답점수를 합산한다. 최저 5점부터 최고 25점까지의 점수가 나온다. 이를 0에서 100점까지로 환산한다. 이 결과 낮은 점수(33%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내지배형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남편이 대부분의 최종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높은 점수(66% 초과에 해당하는 점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편지배형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③ SDI와 DPI의 조합 - 66%이상의 SDI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평등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33%이하의 DPI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여성지배형'으로 분류한다. 65%이하의 SDI점수를 받고 동시에 66%이상의 DPI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남편지배형'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65%이하의 SDI점수와 34-65%사이의 DPI점수를 받은 응답자는 '분리형'으로 분류한다.

해 개방형 질문지를 배부하고 이를 회수하였다.¹²⁾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문헌조사를 통해 선별한 문항들을 더 추가하였다.

3.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열등의식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수정하여 총 10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4. 본 조사 척도는 열등의식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자문전문집단은 정신과 의사 1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3명, 정신의료사회사업가 3명, 임상심리학자 2명, 사회학자 1명 등 총 10명에게 의뢰하였다.

5. 자문집단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학력, 지적 능력, 수입, 직장생활, 집안배경, 외모, 성생활, 집안 일처리, 자녀, 대인관계의 10가지 차원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총 10문항을 4점 Likert척도(①항상 느낀다 ②자주 느낀다 ③별로 느끼지 않는다 ④전혀 느끼지 않는다)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6. 이렇게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31명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robach α 에 의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2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표본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빈곤가구로 표본을 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여 독립변인인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가구이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밀집거주지역이라 할 수 있는

12) 조사대상자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속	집단수	응답자수	성 별		결혼 유무		예비조사내용
			남	여	기혼	미혼	
대학생	3	K대학 -41명	16	25	5	36	1. 열등의식의 개념적 정의 - 열등의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부간 열등의식이 발생하는 경우 - 부부사이에 어떤 경우에 열등의식을 느끼십니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J대학 -40명	22	18	0	40	
		Y대학 -40명	11	29	0	40	
대학원생	1	Y대학원 -10명	2	8	2	8	
일반회사원	2	C회사 -53명	32	21	45	8	
		K회사 -150명	126	24	98	52	
공무원	2	I초등학교 -20명	9	11	17	3	
		N초등학교 -20명	12	8	18	2	
사회사업가	2	N노인복지관 -7명	4	3	7	0	
		T종합복지관 -20명	6	14	7	13	
전업주부	1	전업주부-22명	0	22	22	0	
총 계	11	423 명	240	183	221	202	

노원구를 5개지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에 의한 1:1 면접방법에 의해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다. 즉 해당지점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해당지점 조사원으로는 각 해당지역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는 1997년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수집된 자료는 171부였으며, 이중 응답이 충실하지 않아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21부를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150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이 때 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열등의식 정도, 성역할태도의 실태, 아내구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열등의식의 각 영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폭력여부에 따른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방법과 결과해석에 대하여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지역의 빈곤가구의 경우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아내구타는 가정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고, 당사자들이 밖으로 노출하기를 꺼려하므로 사실보다 축소해서 응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측정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갈등행위와 문제에 대한 회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억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IV. 자료분석의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연령별 특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는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연령분포는 40-49세가 40.7%이고, 50-59세가 29.3%로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70.0%)가 40-60대의 중장년층이고, 60세가 넘는 대상자도 20.7%여서, 전체적으로 고연령층의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고연령화는 조사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가구에 비해 자활능력이 있는 젊은층이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이 64.0%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23.3%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졸 이하가 총 87.3%에 달해 비교적 낮은 교육수준을 나타냈다. 전문대 이상 대학졸업자는 6.7%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매우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에 있어서 46.7%가 소점포, 포장마차와 같은 형태의 영세자영업 및 일일노동, 파출부와 같은 단순노동, 그리고 식당 보조, 서비스 업종 보조원과 같은 피고용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듯 50만원 미만이 전체 72.7%에 달하는 1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만원 미만의 소득자도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소득 수준으로 보였다.

2. 아내구타의 실태

아내구타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행위이다. 이러한 아내구타는 경미한 폭력에 서부터 심각한 신체적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연구 결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난 1년간 적어도 1번 이상 구타를 한 남편은 조사대상자 150명 중 34.0%에 달하는 51명으로 나타났다. 아내구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정없이 때리거나, 몽둥이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칼이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등의 심한 구타도 전체 조사대상자 중 1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구타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율은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Straus와 Gelles(1990)는 폭력행사자들이 자신의 폭력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을 보고한 비율은 최소한의 비율이며, 이 경우 실제 폭력률은 최소 2배 이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사회의 빈곤가구에서 실제 발생하는 아내구타는 본 연구결과 나타난 34.0%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아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사업적 개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3. 열등의식의 실태

열등의식의 실태는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표에서 왼쪽은 열등의식의 각 영역을 표시하였으며 오른쪽으로는 열등의식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열등의식을 '항상 느낀다'와 '자주 느낀다'를 합해 느낀다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와 '전혀 느끼지 않는다'를 합해 느끼지 않는다로 분류하여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표시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43-87.3%)은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높은 열등의식을 느끼는 영역은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건강과 관련된 외모 및 성생활 등에서 높은 열등의식이 나타났다. 가장 열등의식이 낮게 나타난 영역은 수입에 관한 영역으로 43.0%에 그치고 있었다.

<표 3> 열등의식의 실태

열등의식 유형	열 등의 식 의 유 무		순위
	느 낀 다	느 끼 지 않 는 다	
학력 열등의식	131 (87.3)	17 (11.3)	1
지적능력 열등의식	119 (79.3)	29 (19.3)	2
외모 열등의식	110 (73.3)	36 (24.0)	3
성생활 열등의식	102 (68.0)	40 (26.7)	4
집안배경 열등의식	101 (67.3)	43 (28.7)	5
대인관계 열등의식	99 (66.0)	48 (32.0)	6
직장 열등의식	97 (64.7)	25 (16.7)	7
자녀지도 열등의식	94 (62.7)	51 (34.0)	8
일처리 열등의식	91 (60.7)	55 (36.7)	9
수입 열등의식	65 (43.3)	79 (52.0)	10

4. 열등의식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는 10가지 영역의 열등의식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요인분석 결과 열등의식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첫번째 요인은 일처리, 자녀교육, 대인관계, 지적능력과 같이 상대에 관련하여 자신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지적 또는 과업수행능력 영역이다. 두번째 요인은 수입, 집안배경, 직장지위와 같이 개인이 변화

시킬 수 없는 영역으로 신체 및 환경적 영역이다.

따라서 첫 번째 요인은 무형적 열등의식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유형적 열등의식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요인에 학력이 포함된 것은 학력이 지적능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열등의식의 요인분석 결과

변 인		요인적재량 I	요인적재량 II
무형적 열등의식	학력열등의식	.85345	.08004
	지적능력열등의식	.83376	.12074
	대인관계열등의식	.63355	.38112
	자녀지도열등의식	.57316	.38530
	일처리열등의식	.53224	.44019
유형적 열등의식	성생활열등의식	.02411	.81241
	수입열등의식	.16449	.65408
	외모열등의식	.30164	.61098
	집안배경열등의식	.38674	.52975
	직장지위열등의식	.19635	.50496
eigenvalue		4.1101	1.1384
전 체 변 량		41.1%	11.4%
누 적 변 량		41.1%	52.5%

5. 성역할태도의 실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성의 성역할 태도란 아내에게 기대하는 행동에 대한 남편 자신의 인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자녀문제나 집문제와 같이 가족내 공통적 이해 관계가 결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자녀문제의 경우 6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집 마련, 이사와 같은 집 문제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9.3%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남편의 직장문제나 아내의 직장문제와 같이 한 쪽의 이해관계가 보다 많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보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당사자가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러한 성역할 태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성역할 태도 유형

성역할태도유형				
남편지배형	아내지배형	분리형	평등형	합계
22 (15.4)	10 (7.0)	74 (51.7)	37 (25.9)	143 (100.0)

성역할태도에서는 분리형이 5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평등형과 남편지배형의 유형이 각각 25.9% 및 15.4%로 나타났다. 아내지배형은 가장 낮은 7.0%로 나타났다.

6. 열등의식, 성역할태도와 아내구타

본 연구의 목적은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내구타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열등의식은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요인은 회귀방식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2개의 요인은 무형적인 측면의 열등의식과 유형적 측면의 열등의식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두 열등의식 요인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열등의식,성역할태도와 아내구타 (n=143)

Goodness of Fit		144.698		
Model Chi-Square		Chi-Square	df	Significance
		18.562	5	.0023
독립변수	망정식에서의 변수들			
	Exp(B)	B	S.E.	Sig.
열등의식				
1. 무형적 열등의식	1.4823	.3936	.2144	.0664
2. 유형적 열등의식	1.8838	.6333	.2202	.0040**
성역할태도				
1. 평등형(reference)	1.0000	-	-	-
2. 분리형	1.0427	.0418	.3384	.9017
3. 아내지배형	.2800	- 1.2731	.7387	.0848
4. 남편지배형	3.0919	1.1288	.4234	.0077**

** p < .01

모델의 적합성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Model Chi-Square¹³⁾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0023$),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의 두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내구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델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구타에 대한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열등의식 가운데 무형적 열등의식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도 수준은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0.05에 가까운 0.07로 나타나 유의도 수준을 0.1로 설정하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반면에 유형적 열등의식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적 열등의식이 높은 사람이 아내를 더 구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를 보면, 성역할태도는 범주변인이기 때문에 평등형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가변수를 만든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분리형과 아내지배형은 평등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지배형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편지배형은 평등형에 비해 아내구타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열등의식, 성역할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내구타

여기서는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와 함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서와 같이 열등의식은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성역할태도는 범주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학력 및 연령, 수입변인을 첨가하였다.

<표 7> 열등의식, 성역할태도, 학력, 수입, 연령과 아내구타 (n=143)

Goodness of Fit		143.767		
Model Chi-Square		Chi-Square	df	Significance
		25.700	8	.0012
독립 변수	방정식에서의 변수들			
	Exp(B)	B	S.E.	Sig.
열 등의 식				
1. 무형적 열등의식	1.4998	.4053	.2179	.0629

13) Model Chi-square값은 상수만 넣었을 때의 -2Log Likelihood의 값에서 독립변인들을 투입했을 때의 -2 Log Likelihood 값과의 차이로 독립변인의 투입이 의미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2. 유형적 열등의식	1.7450	.5568	.2346	<u>.0176*</u>
성역할태도	-	-	-	.0543
1. 평등형(reference)	1.0000	-	-	-
2. 분리형	1.2779	.2452	.3536	.4809
3. 아내지배형	.2437	-1.4118	.7459	.0584
4. 남편지배형	3.2351	1.1741	.4318	<u>.0065**</u>
학 력	.9544	-.0467	.1845	.8001
연 령	.9449	-.0567	.0231	<u>.0143*</u>
수 입	.8792	-.1287	.0887	.1468

* $p < .05$, ** $p < .01$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성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Model Chi-Square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0012$),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 및 사회통계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내구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델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Chi-Square 값이 25.700($p < 0.0012$)으로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의 두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델의 18.562($p < 0.0023$)보다 높아 이 모델이 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유형적 열등의식과 남편지배형 성역할태도 및 연령이 아내구타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열등의식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추가할 경우에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등의식 가운데 유형적 열등의식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적 열등의식이 높은 사람이 아내를 더 구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를 보면 분리형과 아내지배형은 평등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지배형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편지배형은 평등형에 비해 아내구타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내구타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 즉 남편지배형의 성역할 태도유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먼저, 학력은 아내구타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아내구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아내구타가 증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로서 학력수준에 상관없이 아내구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수입을 살펴보면 수입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가구에 있어서 남편의 수입의 대소에 따라 아내구타 정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남편의 경제적 수입이 아내구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아내구타가 어느 계층에서

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연령은 아내구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내구타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연령이 젊고, 유형적 열등의식이 높고, 남편이 지배적인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서 아내구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V. 치료모형 제언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아내구타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아내구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아내구타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남편의 열등의식과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에 대한 구타는 3명당 1명 즉 34.0%가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회이상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각한 아내구타의 경우 10명당 1명 이상이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에 의한 구타를 당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빈곤가구에서 아내구타 문제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traus(1990)가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행사자들이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실제 보다 낮게 보고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있어서의 비율을 최소한의 비율로 간주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아내구타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본에서 아내에 대한 열등의식은 10명당 7명 즉 70.0%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의 대다수가 아내에 대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10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열등의식을 느끼는 영역은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10명당 9명이 학력에 있어 아내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열등의식이 낮은 것은 수입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10명당 4명뿐이었다. 이는 부부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남성이 많이 확보했기에 상대적으로 아내에게 크게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부간 권력구조분석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결정권은 남성에게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열등의식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열등의식을 요인분석을 통해 크게 무형적 열등의식과 유형적 열등의식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유형적 열등의식이 아내구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아내에 대해

성생활, 수입, 외모, 집안배경, 직장지위 등 유형적 영역에서의 열등의식이 높을수록 아내구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부장적인 남편지배형 성역할태도는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에서 성역할태도는 분리형이 51.0%(74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등형 25.9%(37명), 남편지배형 15.4%(22명), 아내지배형 7.7%(10명)의 순이었다. 이중 남편지배형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성역할에 있어서 남성우위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아내구타가 많이 나타난다.

다섯째, 사회통계적 요인 중 연령이 아내구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내구타가 감소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연령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아내에 대한 권한이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열등의식이 높고, 가부장적인 남성지배형의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보다 아내구타의 발생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등의식이 높을수록 아내구타가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이 채택되었다($p < .01$). 또한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일수록 아내구타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도 입증되었다($p < .01$).

2. 사회사업적 치료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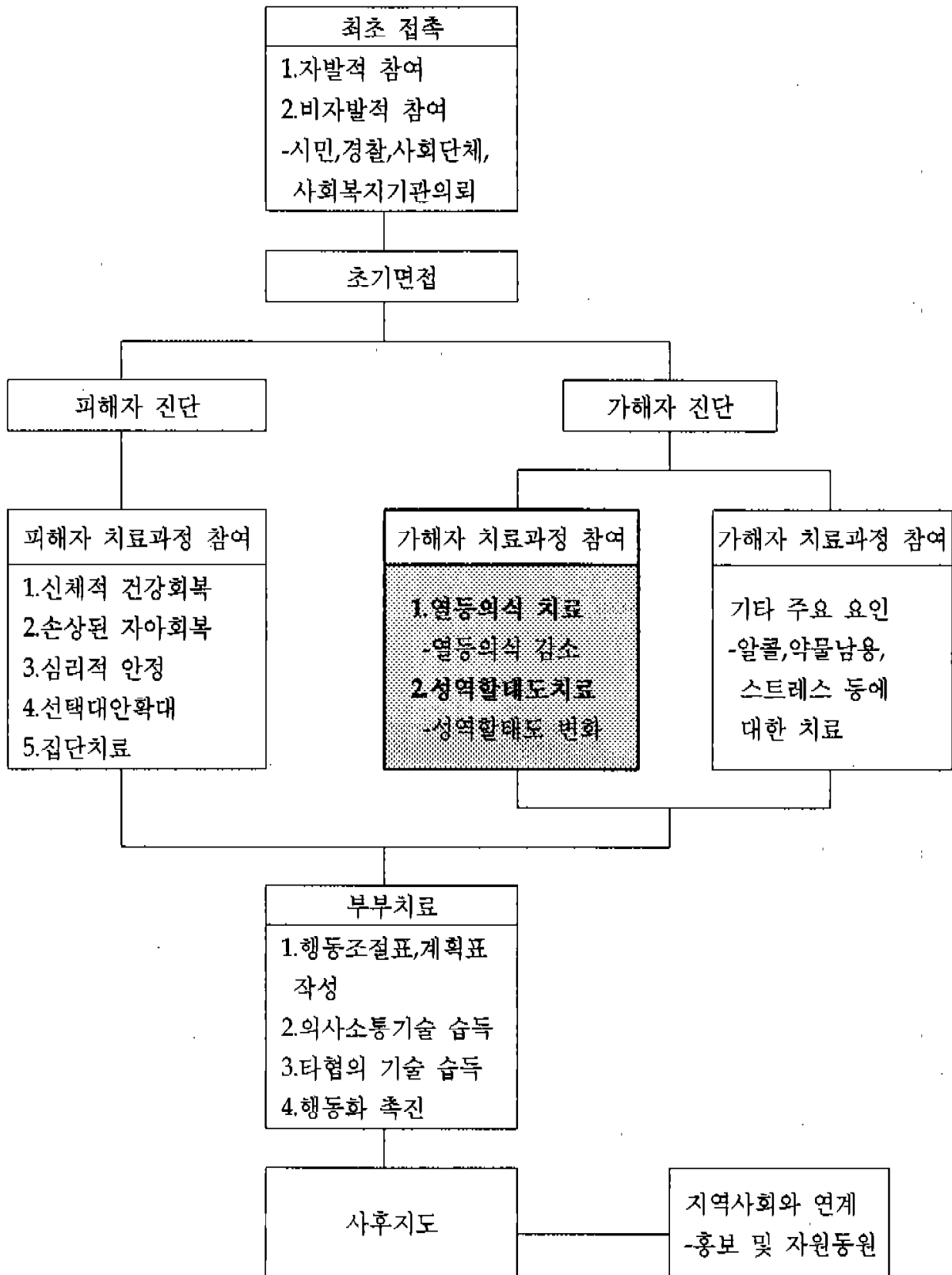
아내구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내구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아내구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보면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편의 열등의식과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는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내구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내구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열등의식과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열등의식과 가부장적인 남편지배형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적 치료모형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치료모형은 <그림 1>¹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내구타가 발생

14) 이 모형은 김재엽(1995) 「가정폭력의 실태와 임상개입에 관한 연구 : 재미한인가정을 중심으로」, 연세 사회복지연구 제2권, p.95에서 제시한 배우자폭력 가정을 위한 임상사회사업모형을 참고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림 1> 아내구타 치료모형



한 부부가 최초로 의뢰되거나 자발적으로 치료기관에 참여하게 된 이후 <그림 1> 아내구타 치료 모형 사후지도까지 거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크게 남편과 아내를 개별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는 초기단계,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정기간 동안 치료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를 함께 치료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부부치료가 끝나면 치료의 결과 나타난 변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후지도가 뒤따르게 된다. 이들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단계

초기단계는 아내구타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아내를 치료에 참가하도록 하는 단계로서, 치료대상자인 아내구타가 발생한 부부와 치료자의 최초 접촉이 일어나는 과정과 이들 대상자에 대한 최초 면접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접촉과정은 아내구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비자발적인 의뢰와 자발적 참여라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는 시민, 경찰, 사회단체,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아내구타가 발생한 가정의 부부를 정신과 의사나 가정폭력전문치료자에게 의뢰하는 것이며, 후자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내구타가 발생한 부부와 접촉하게 되면 치료자는 이들에 대한 초기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내구타는 가정내의 문제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내구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 가정의 부부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치료의 대상은 비자발적으로 의뢰된 부부가 된다.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즉 배우자나 경찰, 법원 등에 의해 의뢰된 경우에는 치료자의 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매우 심하다. 치료자의 역할은 이러한 저항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초기단계에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서 치료자는 무리하게 클라이언트가 원조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원해서 치료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¹⁵⁾ 또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자에 대한 신뢰감이 즉각 형성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점진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신뢰감이 형성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치료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이들이 각각 치료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후의 치료과정을 소개하게 된다.

2) 개별치료단계

15) 김용일, 조홍식, 김연옥 편저, "사회사업실천론", 서울:나남출판, 1995, p. 175.

(1) 가해자 치료

초기단계가 끝나게 되면 가해자는 치료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개별치료단계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가해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치료자는 이 과정에서 아내구타를 발생시킨 다양한 요인과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진단하게 된다. 진단 결과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가 열등의식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로 정의되면, 이후의 치료는 열등의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정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진단 결과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 이외의 스트레스, 알콜, 학습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들 요인들에 대한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 이외에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치료 및 해결방안의 제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① 열등의식 치료단계

열등의식은 자신이 배우자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지속적인 인식으로, 자신의 객관적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열등의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¹⁶⁾ 그리하여 열등의식에 대한 치료는 열등의식을 초래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사고패턴을 재구조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치료자는 먼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열등의식을 인식하고 받아들일도록 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열등의식을 수용하게 되면 다음에는 열등의식의 어떠한 영역을 식별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열등의식에 대한 이전의 대처방안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대처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구체적 행동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때 치료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혹은 치료자 자신이 모델링해 보임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행동을 가리키는 교사와 같은 역할이 보다 강조된다.¹⁷⁾

아래 <그림 2>에는 이와 같은 열등의식의 치료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때 여기서 제시하는 치료단계는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늘려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Manfred B. Ray, "The Importance of Feeling Inferior",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1957, p. 221

17) R. T. Ammerman and M. Hersen, "Case Studies in Family Violence", Plenum Press, 1991, p. 285

<그림 2> 열등의식의 치료단계

1과정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2과정 : 열등의식의 경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인식 제고
3과정 : 열등의식의 영역 식별
4과정 : 클라이언트의 현재 열등의식 대처방법 규명 및 바람직한 대처방법의 계획
5과정 : 행동변화의 전략 수립
6과정 : 새로운 행동양식의 강화

② 성역할태도의 치료단계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 변화를 위한 치료는 성역할태도를 평등한 성역할태도로 변화하게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치료의 첫 번째 단계에서 치료자가 해야 할 일은 클라이언트의 성역할에 대한 사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성역할태도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성역할태도와 행동양식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이후 이러한 성역할태도를 가져온 선행요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치료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관계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성역할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원조해준다. 아래 <그림 3>에는 성역할태도의 치료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3> 성역할태도의 치료단계

1과정 : 클라이언트의 성역할태도 규명
2과정 : 성역할태도와 행동양식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3과정 : 성역할태도의 선행요인 규명
4과정 :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로 변화 유도
5과정 : 바람직한 성역할태도의 강화

(2) 피해자 치료

피해자인 아내를 치료하는 목적은 아내의 손상된 자존심을 높여주고, 아내구타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으로써 폭력적인 부부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¹⁸⁾

치료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치료자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의뢰되면 피해자가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피해자인 경우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런 경우 치료자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의뢰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내구타 피해자를 돕고 지지하는데 있어 치료자가 해야 할 두번째 역할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자기비난을 다루어 치료에 참여하는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치료자는 피해자에 대해 구타당하는 아내가 폭력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원인들을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기비난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아존중감이 회복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어느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리를 일깨워주고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심리,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되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아내구타가 발생한 환경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돌아가는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다시 이전의 구타가 일어나던 상황에서 구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대처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자는 의사소통기술 학습이나 역할연습을 통해 피해자가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하고, 동시에 아내구타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복지기관, 경찰, 쉼터 등을 소개해 줌으로써 피해자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3) 부부치료 단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별치료가 이루어진 이후 치료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부부를 함께 치료한다. 부부치료의 목적은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다.

부부치료에서 치료자는 부부가 이전의 치료에서 얻은 인식과 변화들을 직접 부부관계에서 적용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행동조절표나 행동계획표를 작성하여

18) 김재엽, 전계서, 1995, p. 97.

점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부부간 의사소통기술을 익히게 한다. 의사소통기술을 익히게 하는 의사소통훈련은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기대, 요구, 가능한 응답 등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의사소통훈련의 내용으로는 의사소통 유형 알아보기, 의사소통 방법 알기, 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부부관계 이해하기 등이 포함된다.¹⁹⁾ 이 때 이러한 의사소통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해 치료자는 역할연습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치료자는 부부가 타협의 기술을 익히게 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할연습 등을 통해 이를 시험해 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부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치료의 결과 생긴 변화를 실제 행동화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치료자가 실생활에서의 행동화를 촉진케 하는 것은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평등한 부부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4) 사후지도

치료자는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수행하게 된다. 사후지도에 수반되어야 할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이다. 아내구타의 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내구타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예방 및 교육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아내구타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자원이 존재하고 이들 자원들이 원활하게 연결될 경우 아내구타의 문제해결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아내구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개입활동은 먼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교육내용은 아내구타의 심각성 및 폐해, 지역사회 개입의 필요성,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안내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개입에서 사회사업가는 기존의 사회서비스들과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내구타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내구타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정폭력방지특별법안은 향후 아내구타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입에 있어서 정당성을 제공하고,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9) 변화순,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봄호, 통권 42호, 1994, p. 96.